

미국

미국 건설 경기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예상

맥그로 힐 건설 정보 그룹(McGraw-Hill Co. Construction Information Group)의 로버트 머레이(Robert Murray) 부사장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최고 경영자를 위한 2002년 경기 전망 컨퍼런스(Outlook 2002 Executive Conference)에서 2002년도 미국의 건설 경기를 전망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는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폭탄 테러 사건 이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내년도 미국 경기를 분석하면서 건설 경기를 전망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2002년 상반기에 건설산업은 주택 수요자와 부동산 투자자의 심리 위축과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취약, 그리고 상업 공간의 수요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지만, 낮은 이자율과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잠재적인 지원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결과, 2002년 신규 건설 물량은 4,814억 달러로 예상되는 2001년보다 약간 적은 4,81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머레이 부사장은 또 건설산업의 세부적인 시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단독 주택 부문은 2002년 초부터 직업 시장의 둔화와 소비 심리의 위축에 의해 주택 분양과 건설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견히게 되면, 현재의 낮은 저당 이율이 주택 수요자들의 잠재 수요를 실거래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요인이 될 것이다. 공공공사 부문의 건설시장은 계속되는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 물량의 확장으로 다른 공공공사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시설 건설 부문은 이전 4년 동안의 지속된 성장으로 새로운 발전소에 규제가 심화되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공장 건물 부문은 4년 동안 지속된 하락으로 2002년 초에는 바닥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2% 정도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

아 · 중 동

홍콩 대규모 SOC 시설 투자 계획

홍콩 정부는 1,600여개 이상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4,000억 홍콩 달러(51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향후 9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공공 사업은 주로 교통 시설, 부지 매립(land formation), 항만 시설, 주택 시설, 관광 관련 개발 사업, 교육 시설, 의료 시설들과 환경 보전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제9 컨테이너 터미널, 홍콩디즈니랜드 1단계, Pak Shek Kok 과학공원 등의 사업들이 건설 중에 있고, 여러 건의 도로 건설 사업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홍콩의 2개 철도 운영 회사는 West Rail 구간,

Ma On Shan Line 구간 등의 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128억 달러의 사업 비용이 소요되는 이들 프로젝트들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각 단계별로 준공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오는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단계별로 운영할 예정으로 약 128억 달러의 철도, 지방 고속도로, 항만 철도 건설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홍콩 정부와 두 철도 운영 회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SOC 시설에 총 6,000억 홍콩 달러(769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홍콩 동젠화(董建華) 특구행정 장관은 “이러한 SOC 투자로 인해 홍콩은 동아시아의 교통, 물류 및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계속 유지하게 될 뿐 아니라, 고용 창출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SOC 투자 계획과 병행하여 홍콩특구행정지구는 Pearl River Delta와 경제 협력 증강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인접 중국 광둥성을 연결하는 주요 SOC 시설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 선전과 홍콩 Western Corridor 도로 구간의 완공을 2005년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또한, 홍콩 정부는 광둥성의 성도(省都)인 광저우에서 선전을 거쳐 홍콩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철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콩 선전 간 노선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中國 新華社>

이란, 외국 기업의 중동 지역 진출 거점으로 부상

최근 들어 중동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나, 이 부문은 전례 없이 경기가 가장 침체된 부문이며, 예상 수치는 시장 규모(금액 기준)로 보았을 때 최근 절정이었던 1997년도에 비해 35%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ENR >

미국 대학의 CM 교육 프로그램 열악

미국 대학의 CM 교육 프로그램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수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CM 교과 과정, 장비, 시설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CM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내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실무 중심의 학문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 사회에서 매우 열등한 위치에 서 있다. 재정 지원과 졸업생의 기술적 깊이가 부족하며, 교과목 및 교과 과정의 통일성과 차별성이 결여되어 학생, 고용주, 취업 카운슬러 등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흥미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

ENR지는 미국의 88개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CM 교육 프로그램, 장학제도, 등록생, 졸업생, 교수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00-2001년에 1만 7,500명의 학생이 88개 CM 교육 프로그램 학교에 등록했고, 2001년 1학기

에는 3,400명이 졸업했다.

CM 교육 프로그램 과정은 건축, 공정 관리, 공사비 관리 등 폭넓은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경영이나 경제에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 보충되어야 한다. CM 분야는 다양한 학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교육 방식이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책무성(accountability)과 종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전체적인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의 학습에 크게 의존한다. 대학에서는 인턴십이나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NR지의 조사 대상 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한 CM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도 시설과 능력 있는 교수의 부족으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집권 말기 이후 중동 특히,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 이란이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란은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동, 철 등의 엄청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토 면적이 광대하며, 다민족 국가로서 서아시아에 대한 문화·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개혁을 표방하는 하타미 대통령이 올해 재선됨에 따라 정치·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경제 개발 참여에는 유럽, 러시아와 함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행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란 혁명 정권에 의한 외자 정책의 근간이 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Jetro Sensor>

필리핀, 아키노국제공항 고속도로 BOT 방식으로 추진

필리핀 정부는 아카노국제공항(NAIA,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에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에서 97억 6,000만 페소(1억 8,840만 달러)를 절약한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조정위원회(ICC, Investments Coordination Committee)가 NAIA 고속도로 2단계 개발에 BOT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ICC는 정부의 건축 정책에 호응하여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usiness World> CJ

경기 침체와 테러 사태로 건설 프로젝트 삭감 추세



미국 경제의 침체와 테러 사태의 영향을 받아 많은 주에서 재정 지출을 삭감해 나가고 있다. 내년 6월 30일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에 30개 이상의 주가 예산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연방 고속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역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격감에 따라서 연료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의 축소 내지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코네티컷주의 경우에는 건설 프로젝트들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네티컷주에서는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주 발행 공채를 통하여 조달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은 없다.

한편, 관광객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경우 부시 주지사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주 교통국은 6억 6,7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받게 된다. 또한 정규 예산에 포함된 16억 달러 상당의 교통 부문 건설 프로젝트들도 원안대로 추진될 계획이다. <ENR>

미 예산관리국, 테러 피해 복구 지원비로 뉴욕시에 7억 달러 지원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뉴욕시의 테러 피해 복구를 위하여 7억 달러의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 액수로는 사상 최고 규모이다.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고소득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시 행정부는 뉴욕 주 의회와 협의하여 예외적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9월에 발표된 400억 달러 규모의 테러 대응 긴급 재정 지출 법안의 일부이다. 아울러 OMB는 뉴욕시에 대하여 조세 감면 공채 발행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데, 조달된 자금은 상업용 건물의 건축에 지원될 계획이다. <ENR>

철도 이용률 증대, 건설 확대 주장도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수송 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철도 이용객은 17%, 장거리 여행객은 35% 증가하였다. 화물 수송 역시 증가하여 뉴욕시로 가는 긴급 구조 물품 등을 포함하여 237화차분의 추가적인 물량 수송이 이루어졌다.

최근 미국의 테러 사태와 같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여유(redundancy)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에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데 한 가지 이상의 교통 수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하원 수송·인프라소위 위원장은 테러 사건 직전에 화물 및 여객 수송용 철도 건설 프로젝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주 정부들이 발행하는 360억 달러 규모의 공채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대출 및 대출 보증 형태로 3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근 테러 사태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철도 건설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안전 문제도 확대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기차의 경우 납치되더라도 철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살 공격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충돌할 데라고는 철로 끝에 놓여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ENR>

미국 전문건설업계, 사업 환경 악화 국면에

지난 8년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던 전문건설업자들은 금년부터 건설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러나 9월에 발생한 테러 사태와 이에 따른 급격한 경기 위축은 이들이 마련한 사업 계획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은 테러 사태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오락과 항공산업 부문에서 건설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보험 비용과 보증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과 기타 책임보험 비용은 최근 수년간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월 11일의 테러 사태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테러 사태의 영향으로 구조물의 안전 여부에 대한 건물주의 관심이 커지면서 구조 보강 분야와 같은 전문건설업종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골구조 가설업종 역시 사업 전망이 밝은 편이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량과 같이 노후화되어 구조면에서 문제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NR>

멕시코, 신공항 건설 추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주 Texcoco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키로 결정하였다고 10월 22일 발표하였다.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이번 신공항 건설은 향후 3~5년에 걸쳐 총 183억 페소(20억 달러)가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는 총 소요 재원 중 75%를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멕시코 항공산업은 2010년에 금년 대비 65%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공항은 2005년경 포화 상태가 될 현 멕시코시 소재 공항의 3배 규모인 연 9,000만명의 승객 운송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중국

베이징올림픽 관련 건설 사업에 외국 업체 참여 환영



베이징시는 2008년 올림픽 관련 건설사업에 외국 업체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베이징시 위원회 사무총장인 Jia Qunling은 프랑스 Bouygues 그룹의 Michael Derbesse 회장과의 면담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베이징시는 국제 기준의 공개 입찰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Asiapulse>

베이징 최대 지하 종합 상가 건설에 20억 위안 투자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월 22일자에서 베이징 중관촌(中關村)에 5년 내 중국 최대의 지하 상가가 들어선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억 위안(약 3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지하 상가의 부지 면적은 30헥타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지상 건축 부분이 100만㎡, 지하 건축 부분은 50만㎡이다. 중관촌 서구에 건설될 지하 상가는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지하 2층에는 비즈니스·상업·전시·식당·오락 등 종합 서비스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길이 2km에 달하는 교통용 공간으로 지

상과 연결되는 6개의 출입구가 설치되며, 지상, 지하를 모두 합쳐 총 60만㎡에 달하는 주차장의 일부가 만들어진다. 지하 3층에는 중국 최고·최대의 최첨단 방식을 사용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 상가가 건설되면 중관촌 서구는 최고의 비즈니스 무역센터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 人民日報>

준비된 재출발 : 상하이의 500m 타워 건설 계획

미국의 개발 업체들은 악화된 경제와 더불어 9월 11일 국제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의 테러 공격 이후 고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 수요의 의문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국제 금융 센터(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의 설계자들은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 있는 현존 세계 최고의 페트로나스 타워(451.9m)보다 50m가 높은 500m 건물의 건설을 위한 사업 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 복합 용도 타워의 건설은 이미 4년 전에 착공되었으나 파일 기초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모리 빌딩 회사(Mori Building Co., Tokyo)의 한 부문인 개발 업체가 이 사업을 재개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고층부에서 뒤로 꺾여 기울어진 전면을 가진 정사각형 타워로 설계되었다. 정상부에는 원형으로 도려낸 공동(空洞)이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 기념비적인 건물이 9월 11일의 테러와 같은 테러리스트의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될 경우에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개발 업체 관계자는 자신의 건물이 대규모 비행기 공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긴급 상황에서 안전할 것이

일본

건설업 재편 촉진책에 검토 항목 추가

국토교통성은 지난 9월 11일 건설업 재편 촉진책의 실시를 위해 세부 시행 대책을 제시했다. 2001년 2월과 4월에 공표한 재편 촉진책을 수정한 뒤 새로운 검토 항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검토 항목은 ① 입찰 증권의 도입, ② 부분지불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불금(前拂金)의 인하, ③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 증권의 도입, ④ 지주 회사 등에 대한 기술자 전임제와 경영 사항 심사 본연의 자세 정비 등이다. 또 4월에 공표한 이행 보증 비율 인상은 일반 경쟁

건설업 재편 촉진책의 실시안

2001년 내 실시 사항

- 일반 경쟁 입찰 등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이행 보증 비율을 10%에서 30%로 일괄 인상
- 특정 JV에 이행보증제도 도입
- 경영 상황에 따른 전불 보증료 비율의 설정을 건설업 보증회사에 요청
- 지주회사 등에 인센티브제도 도입

(계속 검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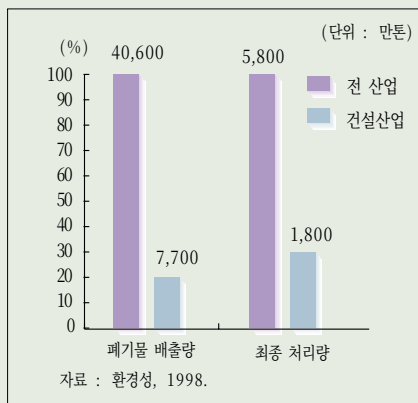
- 특정 건설업의 허가 기준에 자기 자본 비율 도입
- 경심(經審)의 Y평점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회사를 JV의 대표로 불인정

입찰 등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제까지 이행보증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던 특정 JV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IKKEI CONSTRUC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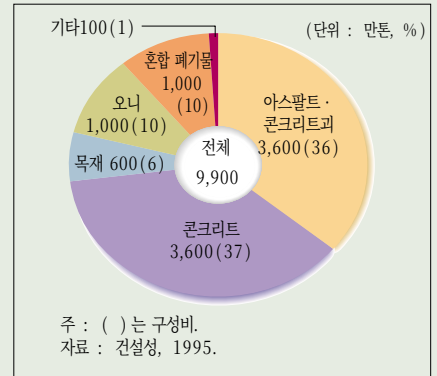
건설 폐기물의 현황과 과제

지난 1998년 환경성 조사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의 배출량은 전국에서 연간 약 7,700만 톤으로, 산업 폐기물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종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건설 폐기물은 약 1,800만 톤 규모로 전체의 약

건설 폐기물 현황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폐기물로는 구조물의 해체 등에서 생기는 콘크리트피와 도로 포장 등에서 생기는 아스팔트피가 각각 37, 36%를 차지하고, 그 외 목재 6%, 오니로 불리는 수분 함유량이 높은 흙이 10%, 톱밥, 콘크리트 찌꺼기, 플라스틱 등이 혼합된 혼합 폐기물이 10%의 비율로 되어 있다. 또, 1999년의 폐기물 불법 투기량은 약 43만 톤으로, 그 중 약 70%가 건설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5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990년, 1995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품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스팔트피 및 콘크리트피는

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대규모 비행기 공습으로부터 견재할 수 있는 건물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래에도 기대할 수 없다고 관계 전문가가 단언했다고 한다.

또한 이 전문가는 아시아에서 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인명 안전 요구 조건이 미국보다 까다롭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요구 조건에는 매 15층에서 20층마다 외기(外氣)에 개방된 피난층, 소방관 전용 엘리베이터, 다수의 외부 계단, 계단으로의 연기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압 계단실, 그리고 비보호 구역에서 보호 구역까지의 짧아진 거리를 포함한다.

이번 사업 재개로 인하여 기본 구조 계획에는 이미 변화가 있었다. 건물 높이가 400m에서 500m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초 파일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올려야 한다. 프로젝트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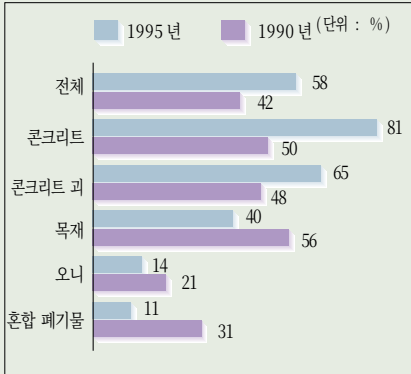
한 구조 전문가는 원래의 구조 계획보다 조밀하지 않은 관형 외피 구조체를 건축하는 설계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설계 개념은 많은 자연광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ENR >

내륙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건설키로

신화통신 10월 23일자에 의하면 중국 징타이(京泰) 집단과 홍콩 카이리(嘉里) 그룹이 110억 위안을 투입, 베이징에 중국 내륙 최대의 물류 센터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 센터는 베이징과 톈진을 연결하는 징진(京津) 고속도로에 인접한 시내 차오양(朝陽)구 18리덴(十八里店)에 건설되며 총면적은 약 350헥타르이다. 2001~2005년의 기간 동안

건설 폐기물의 품목별 재활용률



1995 년의 재활용률이 각각 81%, 65%로 매우 높은 편이고, 1990년에 비해서도 상당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목재, 오니, 혼합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NIKKEI CONSTRUC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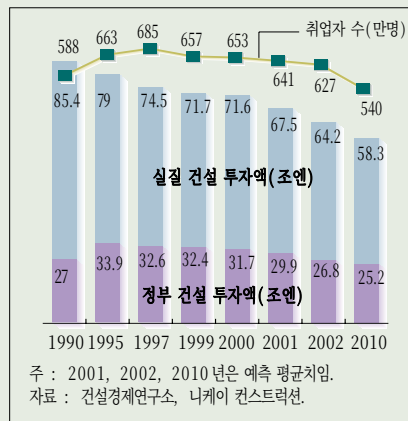
2000년 공공공사 삭감 실적 발표

정부는 최근 2000년도 공공공사 비용 삭감 실적을 발표했다. 전 성청(全省廳)과 전 공단(全公團)을 합한 정부 전체의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총 7,276억엔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6년에 비해 10.2%가 삭감된 규모

이다. 이 중 국토교통성과 관계 공단을 합한 삭감액은 약 6,131억엔, 삭감률은 10.5%로, 1999년도의 삭감률 9.9%에서 0.6%포인트 늘어난 데 그쳤다. 10.5%의 내역을 보면, 계획이나 설계의 재검토 등 직접적 시책이 7.7%, 규제 완화 등 간접적 시책이 2.8%였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삭감률을 발주자별로 보면, 지역진흥정비공단과 같이 11% 삭감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8~1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NIKKEI CONSTRUCTION >

‘소모전’은 이미 한계에 ...

건설 투자액의 감소와 건설업 취업자 수



‘건설 투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12~25% 감소할 것이다’. (재)건설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에 이러한 예측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이 연구소는 지난 2월에는 ‘10년 후의 건설 취업자 수는 490만~590만명’으로 예측하여 최대 170만명이나 되는 건설업 취업자들이 건설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설경제연구소의 취업자 수 예측에는 흥미로운 전체 조건이 있다. 1999년의 취업자 수 약 660만명 가운데 약 60만명은 이미 과잉이었다고 하는 추계(推計)이다. 즉, 건설산업이 버블 붕괴 후 고용 창출의 기능을 하기 위해 과잉 고용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재무성의 법인 기업 통계에서는 시장의 축소로 역행하는 업계의 모습이 손에 잡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블 경기가 한 단계 떨어진 1993년도와 1999년을 비교하면 건설업계 전체의 매출액은 약 15%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취업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은데다가 건설회사 수는 18%가 늘어났으니, 무슨 이유일까. < NIKKEI CONSTRUCTION >

건설될 물류센터는 비즈니스 센터와 전시관, 정보 센터, 종합 서비스 센터 등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中國 人民日報>

베이징 우주 바이오 산업화 기지 건설

베이징시 화이러우(懷柔)현 징웨이(經緯) 공업 개발구에 세계적 수준의 동광홍(東方紅) 향천 바이오 산업화 기지가 설립됐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0월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향천과학기술그룹에 소속된 베이징 동방홍 향천생물기술공사가 2,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해 건설한 이 산업화 기지에는 대규모 생물 실험 센터와 실험용 시설, 연간 생산액 3억 위안의 공장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개발,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생산 등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다. <中國 新華社>

중국 최초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설립

은행의 부실 자산을 인수해 관리하는 부동산자산관리회사가 최근 상하이에서 문을 열었다고 인민일보가 10월 22일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는 중국 최초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전문 업체로 상하이의 공실(空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회사는 부실 부동산을 평가하고 심사하며 리스크 계수를 저하시킬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리 회사는 이미 인수한 부실 부동산을 종합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산의 재편, 채권의 주식화,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

유진근(정책연구부), 최민수·황제인(산업연구부), 건설관리연구부